

■ 고 양재선 지부장 약력 ■

출생지 : 전남 광주시 동구 계림동 276번지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73번지
 학 력 : 1945. 광주 중앙국민학교 졸업
 1950. 광주 농업고등학교, 5년제 졸업
 경 력 : 1954. 육군 제대
 1973. 대한양돈협회 감사

1975. 대한양돈협회 전남협의회 부회장
 현. 대한양돈협회 화순군지부 지부장
 현. 화순 로타리 클럽 봉사인
 현. 화순 종돈장 경영
 표 창 : 1954. 2. 국가 무공 수훈장
 1954. 8. 국가 무공 수훈장

조 사

오늘 이 시각 유명을 달리한 회장님 영전에서 조사를 드리게 되다니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회원일동은 회장님의 급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삼가 회장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불과 2일전만 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장님 특유의 농담과 재치를 통해 세상을 풍자하는 것을 들으며 재기완자한 회장님을 바라보던 것이 어제일 같은데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진 자리에 서다니 참으로 단장의 아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뼈에 사무치게 느낍니다.

지난 50년도 6·25동란이 발발하자 51년도 군에 입대하여 남다른 용맹과 감투정신을 발휘하여 공산주의를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로로 54년도에 두차례나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시어 모든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국가유공자 대열에 서셨고, 또 사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진실, 공평, 선의와 우정,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 봉사인으로서

로타리클럽의 영광된 사회봉사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양재선 회장님!

회자정리가 인생의 결별이요, 만고의 진리라 하지만 회장님이 손수설계하셔서 꿈을 가꾸던 거대한 농장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꿈을 이루라고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십니까?

축산법의 개정, 광주축산물도매시장개설, 대기업들의 양돈분야 참석반대, 화순양돈협회 및 화순양우회 창립등 회원상호간의 화목단결을 호소하시면서 자랑스런 화순지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그 꿈과 이상의 나래를 펼쳐보지도 못한채 말한마디 하시지 못하고 저승으로 떠나버리신 회장님, 정말 정말로 원망스럽고 원통합니다.

양 회장님!

생존에 허물없던 우리회원 일동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영광된 앞날이 될것을 약속드리며 구천에서도 양돈산업발전과 협회의 번영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협회 회원일동은 삼가 회장님의 영전에 명복을 빌면서 평안히 영면하소서!

그리고 영겁의 피안에서 부디부디 행복하소서!

1986. 7. 6

대한양돈협회 화순군지부 회원일동

부회장 김 태 환